마귀가 창조한 에덴의 탈출

(에스겔 31:1~18)

3. 볼지어다 앗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4.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둑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5.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6.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7. 그 뿌리가 큰 물 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8.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9.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귀가 창조한 에덴의 탈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귀가 창조한 에덴의 탈출’
본문에서는 갑자기 앗수르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앗수르의 전성기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상징하며 이제 멸망을 예언 받고 있는 애굽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강가에 심겨진 키가 크고 가지가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던 앗수르가 망했듯이 애굽 또한 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앞선 28장에서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두로의 왕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13절을 보면 두로 왕의 처지와 상황이 에덴으로 비유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이 에덴으로 비유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독특한 신학을 바탕으로 이렇게 망하게 될 나라들의 상황을 에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 어렵습니다.
에스겔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봅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추방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 왜 억울함과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아버지가 보증을 섰다가 집을 빼앗기게 되었다면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 물건을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화가 납니다. 언니가 산 새 옷을 동생이 몰래 입고 나갔다면 화가 날 것입니다.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는 이유도 내게 돌아올 유산을 형이나 동생이 더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식을 할 때에 맛이 없으면 기분이 나빠서 집에 올 때까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맛이 없어도 묵묵히 먹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해내고서야 화를 삭일 수 있기에 이제는 식당에 가기 전에 미리 십자가를 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잔뜩 먹고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집사람처럼 대범했다면 십자가를 절실하게 생활화할 수는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에서도 상실감과 억울함이 들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실낙원을 진리로 믿는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준비된 에덴이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복될 에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에덴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에 나타나는 삶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상징된 복지의 삶입니다. 따라서 선민이라면 이러한 에덴의 상실을 아쉬워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삶은 기쁨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본래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면서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아들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시던 기쁨의 표현이 창조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아들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이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구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삼위일체의 관계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혈기왕성하게 세상을 향해 매진하고 돌진해도 부족할 판에 십자가에서 죽자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애초에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또한 이 기쁨에 참여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위일체를 이루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켰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또 다른 에덴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에덴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에덴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에덴을 통해 진짜 에덴의 상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째 에덴에서의 추방이 사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면, 마귀가 창조한 둘째 에덴으로부터 탈출은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에덴에서는 기쁨이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창조한 가짜 에덴에서는 기쁨이 삶의 목표점입니다. 첫째 에덴에서는 이미 가진 기쁨이 삶의 출발점이 되어서 표현되는 과정에 긍휼과 사랑과 창조가 나타납니다. 반면에 둘째 에덴에서는 기쁨을 추구하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에 기쁨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반드시 교만과 갑질과 멸망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면서 한 턱을 내기도 하고 잔치를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이 되고 갑질을 일으키며 멸망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개월 전에 주어진 애굽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앗수르의 전성기가 잘 자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상징됩니다. 백향목은 키가 25~30m까지 자랍니다. 애굽이 앗수르의 전성기와 동일시된 이유는 예언을 듣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애굽이 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애굽은 여전히 풍요롭고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처럼 이 나라가 졸지에 망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성기의 앗수르가 한 순간에 망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멸망도 그렇게 찾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전성기 때에 앗수르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역사에 남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이 앗수르에 의해 무참하게 정복당하고 사라졌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급성장한 앗수르는 일시적으로 애굽까지 지배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도 앗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선민들이 가졌던 애굽에 대한 인식도 이러했습니다. 애굽은 오히려 앗수르보다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풍요로운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이 망한다고 예언을 하니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멸망을 회상케 하시며 애굽과 동일시하는 예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앗수르를 상징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에덴에 있는 것으로 비유한 점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에덴에 있는 백향목조차도 앗수르로 비유된 백향목은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16절에서도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라고 하였고, 18절에서도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라고 앗수르를 추켜세우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냉소적인 어조의 반어법입니다. 마귀가 창조한 에덴의 대표로써 앗수르를 비꼬

고 있는 것입니다. 앗수르는 마귀가 창조한 에덴에서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하면 할수록 실패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진짜 에덴은 기쁨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에덴에서는 기쁨이 목표점이 됩니다. 이 목표점에 도달하여 기쁨을 얻으면 얻을수록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마귀가 창조한 가짜 에덴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도달하면 반드시 망하고 교만하게 되고 갑질을 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뛰어갑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근거해서 저도 예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인간 세상은 마귀가 창조한 에덴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갑질을 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00%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이 기쁨의 동산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과실들이 많았고 강이 네 갈래로 갈라지면서 강 유역에 각종 보석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은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기쁨으로 삶을 출발하는 자리가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에덴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에덴의 삶입니다. 또 식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먹는다면 에덴의 삶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진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기쁨의 표현이 됩니다. 삶의 전 과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행되었기에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18절을 보면 이러한 에덴의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이나 없다는 말이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다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이 기쁨이었고,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쁨의 이유가 이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마귀의 유혹을 따라 에덴에서 쫓겨나 기쁨의 영역 밖에서 살게 된 인간은 하나님 이외의 기쁨의 이유를 찾고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기쁨거리가 될 수 없고 실제로는 기쁨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대상들을 기쁨거리가 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속임수에 넘어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창조한 에덴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전염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기쁨거리가 가득 찬 에덴과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복(수, 부, 강녕, 유호덕, 고종명)이 그러합니다. 이외에도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

매력적인 이성과 결혼하는 것, 각종 산해진미를 즐기는 것 등이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본래 이것들은 기쁨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것들을 기쁨거리라고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기쁨이 표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진이 되지 않더라도 기쁩니다. 돈이 벌리지 않아도 기쁩니다. 마귀는 본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인간을 속였습니다. 승진해야 기쁠 수 있고 건강해야 기쁠 수 있고 돈 벌어야 기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목표점이 된 가짜 에덴에서 애굽이나 앗수르나 두로의 왕들은 정점에 이른 본보기였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기쁨거리를 모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모두 대표하는 존재로써 앗수르의 전성기가 언급된 것입니다. 가짜 기쁨거리를 많이도 모았으니 그것이 참 대단하기도 하다며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사이비 기쁨거리를 얻기 위해 평생을 바쳐 수고하고 경쟁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있어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라들 간의 전쟁이 그러합니다.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지만 그것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을 떠난 것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군사정권이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생활하던 독일은 대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통일을 기뻐하는 국민들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누가 정치를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강조하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국민보다 정치인이 앞서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벌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지지율을 높이고 표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반목과 경쟁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사이비 기쁨거리를 놓고 다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앗수르의 왕이나 두로의 왕이나 애굽의 바로는 승리한 자였습니다. 기쁨의 동산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비 기쁨거리들을 가득하게 모으는데 성공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침 흘리며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다 손에 넣은 이들을 에스겔은 반어법적으로 에덴에 비유한 것입니다. 에덴에 사는 사람은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귀한 창조한 가짜 에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짜 에덴의 삶을 살아야 될 선민이 이러한 사이비 에덴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당사자인 앗수르나 애굽은 이러한 사이비 에덴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남이 없는 것을 가졌다는 마음에서 교만이 생겨납니다. 모든 인간이 사이비 기쁨거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에는 교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족함이 없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나 마귀가 창조한 에덴에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보자면 두 사람만을 유지하셨던 하나님은 부흥에 실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류를 사이비 에덴에서 살게 한 마귀는 부흥에 성공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비 기쁨은 하나님과 달라서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쟁해야만 얻을 수 있었기에 가진 사람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그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을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 경쟁의 결과로 돈도 얻고 벼슬도 얻고 건강도 형통도 얻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 주변에는 경쟁에서 져서 갖지 못한 자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사이비 기쁨거리들을 가진 사람이 자신만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여긴다면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특별해지고 심지어는 신처럼 여겨집니다. 재벌들의 갑질을 보면 마치 그리스 신들의 분노를 연상시킵니다. 스스로를 신의 자리로 끌어올리고 상대를 짐승처럼 비하하는 교만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한턱내고 베푸는 모습이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되지 않는 사이비 기쁨으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이윽고 교만으로 숙성됩니다. 숙성이 잘되면 갑질이 나타납니다. 사이비 기쁨을 표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괴물처럼 되어갑니다. 멸망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비 기쁨거리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나 명품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이비 기쁨거리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만하고 반드시 멸망하고 맙니다.

인간은 첫 번째 에덴에서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이비 에덴에서 탈출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나 스스로를 추방시키고 탈출시켜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불리셨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원수가 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마귀가 창조한 사이비 에덴의 중심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그만큼 멀어져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회의 밑바닥에 놓여있던 세리와 창기들은 사이비 기쁨의 획득 경쟁으로부터 도태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마귀가 창조한 에덴의 가장자리에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에 가까웠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평생을 돈 벌려고 노력하셨지만 아직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행인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창조한 에덴에서 탈출하기 쉬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그렇게 원했지만 오히려 회사에서 쫓겨나셨습니까? 마귀가 창조한 에덴에서 탈출하기 쉬운 자리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사장까지 올라갔다면 오히려 구원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 복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것들이 사이비 기쁨인 것을 알았으니 죽으면 죽으리라 탈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재산에 대해 죽고 연금에 대해 죽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을 털고 연금을 받아서 어디에 다 나눠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돈이 사용될 방향을 정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산으로 인해 기쁨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이비 기쁨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과 승천에 참여함을 통해 마귀가 창조한 에덴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비 기쁨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료들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많은 돈과 지위와 신분 승진 주어진 많은 물건들이 기쁨거리여서는 안 됩니다. 기쁨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괴롭다면 사이비 기쁨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고 마귀가 창조한 에덴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진짜 기쁨거리 하나님을 상하게 하지 않는 한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의 재료로 사용해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구원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많은 군중은 예수님을 거짓말로 고발하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공회의 고관대작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로마에 넘겼습니다.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창조한 에덴으로부터의 탈출이요 나 스스로를 추방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덴에서는 추방되는 것이 사망이고 두 번째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마귀가 창조한 사이비 기쁨거리들로 가득 차 있는 에덴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기쁘고 슬픈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창조한 에덴에서 사이비 기쁨거리들에 의해서 내 기쁨과 슬픔이 좌우되고 있다면 이것은 이루어져도 교만과 멸망으로 끝이 나고 안 이루어지면 끝까지 참 에덴으로의 진입을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조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인간 세상은 지금 현재 마귀에 의해서 창조된 두 번째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기쁨거리들은 사이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온갖 비난과 공격과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붙잡고, 마귀에 의해서 창조된 에덴을 탈출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에덴으로 진입해서 하나님만을 기뻐함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에덴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